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2. 10 | Vol. 221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원공당 정무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

법왕사 회주이셨던 원공당 정무 대종사 1주기가 오는 10월 17일 돌아옵니다. 법왕사에서는 생전에 저희 법왕사와 특별히 깊은 인연을 맺고 법문하셨던 정무 큰스님의 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날 법회에는 큰스님의 생전 모습과 입적 후 생전에 인연 있는 분들과의 교류 등을 다시 볼 수 있는 추모영상도 상영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2012년 10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 소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법 문 주지 실상스님/정무스님 추모영상 상영

제23회 백고좌(31일차)이동법회 및 송담스님 친견 및 화두·불명 수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인천 용화사 조실하신 송담 큰스님 친견법회를 백고좌법회 31일차 이동법회로 봉행합니다.

송담스님은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의 은사하신 원공당 정무 큰스님과 함께 근대 한국의 대표적 선사인 전강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종정하신 진제스님과 함께 '북송담 남진제'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선사입니다.

특히 스님은 전법제자 양성을 위해 일체 외부 법문이나 친견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 친견하기가 더욱 어려운 가운데 법왕사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친견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제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이동법회를 수행정진의 좋은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법 회 화두, 불명, 십선계 수계법회
- 일 시 2012년 10월 7일(일)
- 출 발 오전 7시 법왕사 주차장
- 장 소 인천 용화사





- 04 원공당 정무 대종사 1주기 추모 특집
Ⅰ. 참 수행자의 진면목 보여주셨던 선지식
Ⅱ. 오늘, 스승님이 사무치게 그리웁습니다! · 심경스님
Ⅲ. 그리운... 정무스님 · 김호철 총경
- 10 비슬산방
스승님의 포교원력 영원토록 이어 나가겠습니다 · 실상 주지스님
- 12 용두마을
열반성에 머무르지 말라 · 묘도스님
- 14 제23회 백고좌법회 발원문
이 땅이 불국토가 되길 발원합니다
- 16 불교상징의 세계 Ⅱ
성불에 이르는 길, 삼문 · 조명래
- 22 특집 / 화보
우란분절, 백중 49재 회향 / 백고좌법회 입재 / 산사음악회 봉행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1 해오름소식
- 32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장 1길 2-9번지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6(서기 2012)년 10월 01일 발행 | 통권 221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 기획 · 제작 · 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참 수행자의 진면목 보여주셨던 선지식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원이신 원공당 정무 대종사께서 2011년 9월 29일(음력 9월 3일) 오전 8시 40분 경기도 안성 석남사에서 법랍 55년, 세수 81세로 입적하셨다. 정무 대종사는 법랍 55년 동안 포교와 교육 등 한국 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기셨다. 이에 오는 10월 17일 정무 대종사 입적 1주기를 맞아 정무 대종사가 걸어오신 길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내가 이 세상에 인연 따라 왔다가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 간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우리 거기서 만나자.”는 열반송을 남기시고 입적하신 원공당 정무 대종사께서는 1931년 군산에서 출생, 1958년 1월 군산 은적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셨다.

영주 포교당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치신 정무스님은 생전에 “집에서도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강조하셨으며 효사상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인간행의 덕목임을 알리는데 진력하셨다. 정무 대종사께서는 한결 같이 일상에서의 수행을 강조하셨는데 행주좌와의 일상 속에서 실천적 수행을 몸소 보여 오셨다.

스님은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새벽 3시 기상, 4시 예불, 5시 참선, 6시 공양, 7시 청소, 9시~11시 면담 및 공부, 11시 헌공...오후 8~9시 공부, 10시 취침’의 일과표를 방에 붙여놓으시고 철저하게 정진하셨다.

스님은 또 1963년 김제 홍복사에서 5하안거를 지내신데 이어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범주

사 북천암 등 전국의 선원을 찾아 참선수행으로 대오를 하셨다.

정무스님은 효 사상으로 청소년의 심성을 치유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이를 위해 스님은 용주사와 석남사에 ‘한글부모은중경탑’을 건립, 효사상을 고취하셨고 또 대구 정법거사림회, 한국관음회, 세무대학불교학생회, 경찰대학불교학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법사를 역임하시는 등 포교 원력을 몸소 실천해오셨다. 문서포교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스님은 〈정명의 길〉, 〈은혜를 갚은 사람〉, 〈평생공부〉, 〈마음공부〉 등의 저서를 펴내시기도 했다.

스님은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셨다. 웬만한 추위에는 방에 불을 넣지 않고 지내셨고, 버스와 지하철로 법문을 다니시면서 삼보정재를 아끼셨지만, 포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낌 없이 쾌척하셨다.

정무 대종사께서는 평생동안 효사상의 고취뿐만 아니라 참 수행자의 진면목을 보여 주신 진정한 선지식이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연보

출생

1931년 4월 19일(음)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에서 출생

득도

1958년 1월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계사(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5년 3월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선사를 계사로 보살계 구족계 수지

수선안거

1963년 4월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선사를 조실로 3하안거 성만
1966년 4월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선사를 조실로 3하안거 성만
1987년 10월 속리산 북천암에서 3하안거 성만

수행 및 포교

1968년 10월 영주 포교당 주지
1970~1984년 제3, 4, 5, 6대 중앙종회 회원
1971~1982년 제2 교수 본사 용주사 주지
1981년 3월 조계종 중앙종회 선거관리위원
1982년 4월 세불회, 경불회 지도법사
1982년 4월 대불련 경기도 총재
1982년 8월 수원 교도소 교정위원
1982년 10월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위원
1983년 4월 세계불교 대법회 지도위원
1983년 6월 여주 신록사 주지
1986년 5월 여주경찰서 경승법사
1987년 5월 용인경찰대학 지도법사
1990년 대구 법왕사 회주
1993년 4월 용인경찰서 경승법사
1999년 7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
2000 ~ 10년 안성 석남사 주지
2007년 4월 조계종 원로위원 추대
2007년 12월 포교대상 수상(종정 표창)
2008년 10월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수
2008년 10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법사

입적

2011년 9월 29일 오전 8시 40분

“내가 이 세상에 인연이 있어서 왔다가
정직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다가니
도솔천 내원궁에서 함께 만나자.”

원공당 정무 큰스님!

스승님은 1년 전 열반 계송 한 편을 남기고 홀연히 이 사
바세계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스승님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학승 심경스님 / 중심문도회 회주



습니다.

스승님은 생전에 늘 인자하신 모습으로 저희 제자들을
보살피 주셨고, 또 중생들을 어루만지며 제도하느라 항상
바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환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
고 언제까지나 그런 모습으로 계시리라 믿었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스승님께서 곁에 계신 것 만으로도 마음 든든했
으며 수행, 정진하고 포교하는데 있어 거칠 것이 없었음을
이제야 골수에 사무치게 느낍니다.

오늘 스승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1주기를 맞이하여
스승님은 계시지 않지만 범향 훔날리던 맑고 향기로운 모

습과 생전에 간곡하게 훈도하신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스승님은 깊은 공부와 수행으로 이 시대의 사표가 되실 만큼 덕 높으신 선지식이자 선승이셨고 또 종단을 대표하는 대종사의 품계에까지 오르셨지만 위엄보다는 자상함으로, 질책보다는 격려로써 저희와 사부대중들을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스승님은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속의 도리와 다르지 않다며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효에 관한 스승님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치열하였고 그만큼 이 시대 중생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스승님은 불법수행의 목표가 성불(成佛)에 있음을 항상 강조하시며 자기 안의 불성을 찾아 갈고 닦음으로써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승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불했으면 행불(行佛)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지금껏 어떤 선지식도 알려주신 바 없는 새로운 차원의 수행법을 제시 하셨습니다.

스승님!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도 저희 제자들과 생전에 제도하셨던 사부대중들을 굽어보시며 대자대비심으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문도들은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 미혹하지만 불퇴전의 용기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새기고, 또 더 널리 퍼서 스승님께서 생전에 서원하셨던 불국토 건설에 힘쏟겠습니다.

1년 전 스승님의 입적을 당해 종단과 전체 교계, 사부대중께서 보내주신 애도와 추모의 뜻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스승을 여윈데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은 모든 사부대중이 다름없음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아울러 저희 제자들은 스승님의 높은 뜻을 잊지 않고 널리 펼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스승님도 부디 굽어살피사 가피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공당 정무 스승님의 1주기에 부쳐
문도 대표 심경 삼가 씀

10월이 다가옵니다. 10월은 단풍의 계절이지만 이제는 그리움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울 때 그 사람이 자주 다니셨던 길을 걷고, 그분이 앉으셨던 마루에도 걸터 앉아봅니다.

그러면 그 분이 방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라고 부르실 것만 같습니다. 어떤 때는 엄한 스승이셨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 같은 분, 정무 스님은 제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운... 정무 스님

김호철 / 총경



제가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여주 신록사로 수련대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스님은 신라 화랑들의 원광법사처럼 경찰대학 불교학생회를 10여년간 지도하셨습니다.

그 수련대회에서 한 학생이 “스님, 왜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너는 꿈속에서 불에 들어가면 안 뜨겁나?”라며 일갈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스님의 명쾌한 대답에 매료된 후 20여년 넘게 스님을 따랐습니다.

스님께서는 발심(發心)을 위해서는 경탄이나 의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명산대천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특히, 설악산 봉정암 순례는 매년 7월의 연례행사였습니다. 심지어 입적하시기 불과 몇 년 전에도 70대 중반이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순례

길이 힘들었지만 내려올 때는 모두 환희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스님은 ‘부모은중경’ 박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용주사 주지스님을 하실 때 부모은중경탑을 건립하시고, 또 안성 석남사에도 부모은중경탑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스님께서는 “100살 먹은 어머니가 80살 먹은 이들을 걱정한다. 전생에 내 부모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공양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바른 불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자연건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아무리 깨끗한 감로수도 그릇이 깨지면 담을 수 없다.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과 같으니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실천하시다 작년 10월, 도솔천에 오르셨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인연 따라 왔다가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간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정무 스님!
보고 싶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스승님의 포교원력 영원토록 이어 나가겠습니다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 ● 백고좌법회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공부에 열정 있는 불자들이 많아 매일 법석을 채워 주셔서 다시 한번 합장, 감사드립니다.

● ● 이 달에는 소승의 스승이신 원공

당 정무 대종사께서 원적하신 지 1주기가 됩니다. 제자로서 큰 버팀목이던 스승을 여윈 심정은 세속에서 부모를 여윈 자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나 법연의 부모나 소중하기는 매 일반이니까 말입니다.

스승님의 입적 1주기를 맞이하니 소회가 깊습니다. 스승님은 수행은 물론이고, 특히 포교에 있어서 남다



른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스승님은 출가하셔서 당대의 제일 선지식이자 선승이신 전강스님 회상에서 ‘판치생모(板齒生毛)’ 공안을 들고 참선 수행하시어 마침내 개오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중포교에 나서

서 일찍이 시도된 바 없는 대중포교의 방안을 실행하시어 오늘날 도심포교당이나 신도회 조직 등의 선구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 ● 스승님은 1968년 경북 영주에서 당시로서는 개념조차 없던 도심포교당을 세우시고 신도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법회를 홍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자 스님은

손수 목탁을 들고 시내를 돌며 법회를 알리셨습니다. 또한 청년 불자들을 규합해 대학생 불교 수련회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스님은 어느 사찰에 주석하시든 직접 발벗고 나서서 수련회를 만들어 신도교육에 앞장서셨습니다.

또한 스승님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것은 스승님은 평생 당신의 편안을 구하지 않고 잠시라도 쉽없이 노동하면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백장청규를 몸소 실천하셨다는 점입니다. 백장청규는 요즘 승가의 생활규칙을 정한 최초의 선불교 규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은 스스로 구해서 대중에 누를 끼치지 말라는 매우 엄격한 규칙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그 혼란한 시기에 모든 교종 계통의 불교들이 다 없어질 때에도 오직 백장청규를 지킨 선불교만큼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 스승님은 생전에 늘 맨발 차림에 하루 30회 이상 손을 씻어야 할 정도로 흠을 묻히며 몸소 발을 일구셨고, 청소와 빨래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 다. 청규를 실천하시다 보

니 청빈은 스승님의 몸에 밴 생활이었습니다. 웬만큼 추워서 는 난방을 하지 않고 따뜻한 물도 쓰지 않았습니 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셨고 멀리 출타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대중교통만 이용하셨습니다. 대중의 시주로 받은 청재는 쌀 한 톨도 헛되이 하지 않고 잘 갈무리하셨다가 포교나 장학사업에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거금을 쾌척하시었습니다.

●● 멀리 떨어져 계셔도 늘 든든했고 큰 힘이 되셨던 스승님은 사바세계와의 인연이 다 끝나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뒤에 남은 제자는 스승님을 그리워하며 생전의 가르침을 등불삼아 유지를 받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소승의 포교 욕심이 무척 큼니다. 저의 포교 원력은 아마도 스승님의 물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찍이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스승님을 본받아 소승도 법왕사를 명실상부한 세계제일의 포교당으로 우뚝 세울 것을 서원합니다.

저의 이 장도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수회동참하시어 다함께 불국토를 건설하도록 합시다.

열반성에 머무르지 말라

묘도스님 / 법왕사 총무

반야의 바다를 구축하시고도
열반성에는 안 머무시니
흠사 연꽃이 높은 땅에서 아니남 같네.
모든 부처님은 한량없는 겁에
온갖 번뇌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건진 뒤 얻으시니
시궁창에서 연꽃이 땀과 같도다.

具足般若海 不住涅槃城
如彼妙蓮華 高原非所出
諸佛無量劫 不捨諸煩惱
度世然後得 如泥華所出



금강삼매경에서 보살의 보살행을 찬탄한 게송입니다. ‘반야의 바다’란 반야 즉 지혜가 넓고 깊을 비유하여 한 말이고, ‘열반성’이란 열반이 편안하고 풍족함을 성(城)에 비유하여 한 말입니다.

저 어진 이는 바다 같이 넓고 큰 반야를 구축하고도 성과 같이 편안하고 풍족한 열반에 머물지 않고, 번뇌가 치성한 삼계육도에

서 마음을 일으키어 중생제도의 꽃을 피움이 마치 미묘한 연꽃이
높고 메마른 땅에서 피지 않고 낮고 질퍽한 시궁창 속에서 핼과 같
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들은 번뇌 속에서 중생을 교화한 후 성불하셨
다는 말씀입니다. 열반에 들 수 있지만은 일부러 번뇌를 버리지 않
고 오히려 번뇌진장에서 마음을 일으켜 못 중생을 제도한 뒤에 성
불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시궁창 가운데서 청아한 연꽃이 핼과 같
다는 말씀입니다.

‘열반성에 머무르지 말라’는 이 경구는 바로 원효스님의 가르침
의 핵심인 ‘부주열반(不住涅槃 : 열반에 머무르지 말라)’과 상통
합니다. “열반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의 이 말은 자리이타
(自利利他)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생구제에 나서라는 대승불교의
슬로건과 같습니다.

원효스님께서는 줄곧 부주열반을 강조하시면서 보살도를 실천
하기 위해서 귀족불교로 변질된 신라불교의 현실에서 대중포교를
위하여 저자거리에서 무애가(無碍歌)를 부르며 춤을 추고 돌아다
나셨다고 합니다.

묘법연화경 범사품 제10에서도 “약왕아,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 중생을 불쌍히 생
각하는 고로 악한 세상에 나서 널리 이 경을 설하느니라”라고 하
였습니다.

우리 범우님들은 업력생(業力生)이 아닌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감인사바국토의 고해중생을 제도하려고 원해서 이 사바세
계에 출현한 원력생(願力生, 줄여서 願生이라고 함)의 불자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이 불국토가 되길 발원합니다

시방세계 두루 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룩한 부처님!

오늘, 불기 2556년 9월 6일 비슬산 법왕사
대법당에 모인 저희들은 내일부터 시작되
는 제23회 백고좌법회 입재를 앞두고 부처
님의 무량한 지혜와 복덕을 찬탄하고자 산
사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00일 동안 쉽 없이 계속되는 백
고좌법회는 2천5백년전 부처님께서 사바세
계에 나투시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하신
팔만사천의 법문을 이 시대 이 땅의 불제자
들이 부처님의 그 간절한 뜻이 다시 한번 꽃
피기를 기원하며 여는 법석이오니 부처님
대자대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백고좌법회는 일찍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에 의한 법회로, 부
처님께서 “그대들은 반야바라밀경을 수

지하라. 이 경은 무량공덕이 있으니 국가를
지켜주는 공덕과 중생들을 진리의 기쁨으
로 인도하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는 공덕
이 있다. 또한 모든 중생의 몸을 지켜준다”
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국가와 중생이 혼란과 어
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1백 불상, 1백 보살
상, 1백 나한상을 모시고 칠부대중의 1백분
의 법사를 청하여 법문을 들어야 한다. 이때
1백 송이의 꽃으로써 삼보전에 공양하며,
가르침을 독송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나라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부
처님의 크나큰 위신력에 의지해 나라를 구
하려고 백고좌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백고좌법회에서는 이 시대 이 땅에
서 불법을 수호하고 정진하는 한국 불교의
많은 스님들 가운데서도 법력이 높은 큰스
님 1백분을 초청하여, 부처님께서 하신 팔
만사천 법문 가운데서도 불자들에게 가장
긴요한 경전과 주제를 정해 정율론 삼장 전

반을 아우르는 설법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일찍이 백고좌(百高座) 법회는 우리나라에서 유래가 깊은 설법회로 신라시대 진평왕 때에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 고승대덕 스님을 맞아 법석을 연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불교가 국교이던 고려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국가대사로 백고좌법회와 연등회, 팔관회가 열리던 것이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시대에 들어와 그만 그 맥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1990년 법왕사를 창건한 주지 실상스님은 조선시대 이래 중단되었던 백고좌법회를 되살려 1995년부터 매년 한차례 이상 법회를 열어 올해로 제23회째를 맞게 되었으며 매년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 한국불교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대중법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세계 최강의 대국들에 둘러싸여 늘 위협받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생존을 기약할 수 없는 마당에 지금 한민족은 피를 나눈 동족이면서도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총칼을 겨누고 적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북에는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잔학한 지도층과 혈벗고 굶주리며 핍박받는 인민들로 나뉘어 있고, 남쪽도 극소수의 가진 자와 대다수의 서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갈갈이 찢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남북한이 화합 통일하고, 시방세계에 평화가 깃들어 우리 조국의 국운이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왕사에서 베푸는 백고좌법회의 크나큰 원력이 남북한 통일과 세계평화 건설에 빠짐없이 회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불퇴전의 신심으로 수행하고 정진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려 발원하옵니다.

이번 백고좌법회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원만히 회향하기를 부처님전에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모든 공덕 온 누리에 회향하오니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모두 해탈하고 이 땅이 불국토가 되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성불에 이르는 길, 삼문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산지가람과 삼문의 발달

삼국시대에는 사찰이 산지보다 평지의 도시에 더 많이 있었다. 통일신라 하대에 이르러 중국에서 전래된 선종이 지방호족들의 후원을 받아 크게 발전한 것을 계기로 구산선문으로 개창되면서 산지가람이 널리 확산되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평지사찰과 산지사찰이 공존하며 발전하였으나 몽고의 침입으로 평지사찰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 승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도시 안의 사찰은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다.

삼문형식

우리나라 산지형 사찰을 구성하는 것 가운데 사찰의 중심부를 향해 올라가기 전 여러 단계를 표시해 주는 문이 있는데 이를 형식화하여 삼문형식(三門形式)이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세 개의 문을 순서대로 산문(山門)·대문(大門)·중문(中門)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칭하여 산문이라고 하며, 입구에서 일주문·천왕문·불이문 또는 해탈문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금강문을 두기도 한다. 불국사의 경우에는 일주문과 천왕문, 자하문(紫霞門)이 삼문형식에 해당한다.

도시의 사찰은 주변에 담장을 둘러 성(聖)과 속(俗)의 영역을 구분하였지만, 산지의 사찰은 경내의 영역이 넓고 외저서 굳이 담장



▼ 직지사 일주문
▼▼ 직지사 금강문
▼▼▼ 직지사 천왕문



▲ 불국사 일주문
▲▲ 불국사 천왕문
▲▲▲ 불국사 자하문



을 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담장이 없다보니 산짐승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새벽에 목탁을 치며 경내를 도는 도량석(道場釋)은 대중들을 깨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짐승들이 물러가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산지형 가람에서 일주문·천왕문·해탈문의 삼문 형식이 비교적 긴 거리에 걸쳐 설치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도심의 평지가람에서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일주문과 천왕문이 서로 인접해 있지만 산지가람에서는 진입로가 길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띄어 놓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입로 중간에 건물을 지어 인적을 남김으로서 산짐승들의 피해를 줄이는 한편으로 사찰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일주문

일주문은 사찰의 진입로에서 처음 만나는 문으로 기둥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둥이 한 줄로 나란히 서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일주문은 수미산 우주론에 의하면 향수해(香水海)를 건너 접하는 수미산의 최하단부를 상징한다.

일주문의 변천

일주문의 시원은 멀리 인도에서 발견되는데 보팔 산치대탐의 ‘토라나(torana)’가 그것이다. Torana는 본래 그 안쪽에 기릴만한 존승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문이다.

토라나라는 건축양식이 불교의 전파를 따라 중국에 전래되어 본래의 단순한 모양을 계승한 패방(牌坊)과 중국 건축의 복잡성이 가미된 패루(牌樓)로 분화된다. 그러나 패방과 패루 역시 그 안쪽에 숭배의 대상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 불령산 청암사 일주문

이 패방과 패루가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패방은 속칭 홍살문인 정문(旌門)이 되고 패루는 ‘일주문’과 ‘숫을삼문’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 신사 앞의 도리이와 슈리쵸우의 슈레이몬이 되었다.

일주문의 의미

사찰의 문이 가지는 특징은 문은 있어도 문짝이 없다는 점이다. 문짝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문의 주변으로 담장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짝이 없고 담장이 없는 문이란 공간분할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일주문을 통해서 성과 속이 구분되는데, 문을 경계로 문안은 부

처님이 계시는 ‘진계’라 하여 사찰 경내가 시작되며, 문밖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속계’가 된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는 불이사상(不二思想)과 성과 속은 동일한 개념으로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일주문은 기둥을 네 곳에 세우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일직선상에 세운 두 기둥 위에 ‘사람 인(人)자 모양’의 맞배지붕을 얹어 역학적 건축미를 살린 독특한 형식의 건축물로서 드물지만 하양 환성사나 범어사와 같이 네 개의 기둥을 일렬로 세운 일주문도 찾아볼 수 있다.

일주문의 기둥을 일렬로 세운 뜻은 ‘모든 진리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만법귀일과 우주만유는 일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또한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범화경의 일불승사상(一佛乘思想)’을 표현한 것이다.

일주문에는 일반적으로 ‘가야산 해인사’, ‘영축산 통도사’ 등으

▼ 선암사 승선교



로 위치하고 있는 산의 이름과 절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화사의 옛 일주문에는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이란 편액이 걸려 있어 특이하다.

넷물과 다리

사찰 진입로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것이 계곡에서 흘러내린 넷물과 이를 건너는 다리이다. 때로는 이와 같은 넷물이 없으면 연못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수미산 우주론에서 볼 때 수미산 주위의 향수해를 상징한다.

기본적으로 넷물과 연못은 성과 속을 구분하고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의 경계가 된다. 또 맨발로 생활하는 인도나 남방불교에서는 발을 씻고 들어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맨발문화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세속에 찌든 번뇌를 씻으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넷물과 연못을 건너는 다리의 명칭은 해탈교나 피안교 · 극락교 · 반야교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리에 어떤 이름을 붙이던 간에 해탈과 피안이라는 성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의미한다.

대체로 넷물과 연못을 건너는 다리 양식은 건축적으로 무지개 다리인 홍예교로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개심사처럼 외나무 다리를 놓은 경우도 있다.

홍예교는 반원모양의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저 무지개 너머에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과 부합하며, 물 위에 비친 홍예교를 통해서 원형의 완전한 무지개, 즉 일원상(一圓相)을 구현할 수 있다.



1



2

우란분절, 백중 49재 회향

7월 1일 입재한 백중 영가천도 49재가 9월 1일 백중을 맞이하여 회향했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500여명의 불자들이 영가천도를 올렸으며 매 재일마다 100여분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선망조상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 우란분절 법회에 모인 불자들
2. 연못에 축원등을 밝혀서 띄우고 있다.
3. 영가단에 절하는 불자들
4. 천도재 물품을 불사르는 장면



3



4



1

백고좌법회 입재

제23회 백고좌법회가 9월 7일 입재, 12월 15일까지 100일간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입재법회에는 약 2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도문 큰스님의 실상일승요법 법문이 있었습니다.

1. 백고좌법회에 참석한 불자들
2. 백고좌법회를 축하하는 연합합창단의 축하
3. 정무시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의 축하
4. 법문하시는 도문 큰스님



2



3



4

삼사음악회 봉행

제23회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가 9월 6일 저녁 7시 복지관 대법당에서 인기가수 김태곤, 주호영 국회의원 등이 출연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200여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백고좌법회의 원만 회향을 축원하였습니다.





- 1, 2. 법왕사 우람바라합창단의 합창
3. 초대가수 황혜진
4. 사회자 이수찬 대구마하이주민센터 소장
5. 산사음악회에 동참한 불자들
- 6, 7. 특별출연한 주호영 의원
8. 경북국악단 김아람의 피리 연주
9. '법왕사 가는 길' 곡을 주지스님께 증정하는 박성경 사물놀이단장
10. 가수 김태곤의 무대
11. 법왕사 금강사물단의 사물놀이

법왕사 소식

9월 7일, 제23회 백고좌법회 입재



법왕사 제23회 백고좌법회가 9월 7일 도문스님의 실상일승묘법 법문으로 입재하여 12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날 입재 법회에는 약 2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도문스님의 법문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법회 중간에는 인천 용화선원에 주석하고 계신 송담 큰스님 친견 화두, 불명 수지법회와 법왕사 회주이셨던 원공당 정무 큰스님 1주기 추모법회도 열릴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동참바랍니다

백고좌법회 기사 각 신문에 크게 실려



제23회 백고좌법회를 알리는 기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종합일간지는 물론 불교신문과 현대불교 등 종교신문에도 크게 실려 백고좌법회의 인기와 의미가 크게 홍보되었습니다. 각 신문에는 지난 9월 7일 입재한 백고좌법회에서 법문하시는 법사스님의 사진과 함께 주요 일정을 상세히 싣고 있습니다.

9월 6일 백고좌 전야 산사음악회 봉행



지난 9월 6일 저녁 7시 복지관 대법당에서 인기가수 김태곤, 주호영 국회의원 등이 출연한 가운데 제23회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70년대 최고 인기가수 김태곤과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인 정무시 선생님의 독창, 법왕사 금강사물단, 피리 연주자 김아람씨 등 많은 예술인들이 출연하여 3시간에 걸쳐 흥겨운 초가를 저녁을 연출했습니다.

우란분절, 백중 49재 성황리에 회향



7월 1일 입재한 백중 영가천도 49재가 지난 9월 1일 백중을 맞이하여 회향했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500여명의 불자들이 영가천도를 올렸으며 매 재일마다 100여분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선망조상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본당 법당에 칠성탱화 봉안



법왕사에서는 8월 24일 칠월 칠석에 본당 법당에 칠성탱화를 봉안했습니다. 이번 봉안법회에는 393여명의 불자들이 권선에 동참해 이름을 올리고 또 법회에도 참석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칠성은 복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으로 불교에 도입돼 수명과 재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어졌는데 칠성의 주존불인 치성광여래(熾星光如來)는 천재지변과 질병을 다스리며 재앙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식 낳기를 원하는 사람이 불공을 올렸고, 또 아이의 수명을 관장하고 재물과 재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13일, 가을 경로잔치 열린다



법왕사 가을 경로잔치가 오는 10월 13일(토) 법왕사 광장에서 지역의 어르신 3천여분을 모신 가운데 열립니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흥겨운 공연 한마당을 베푸는 경로잔치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홍보와 동참 바랍니다.

혜능스님 초청 입보살행론 특강 개최



법왕사에서는 혜능스님(전 해인사 율원장)을 모시고 '입보살행론' 강좌를 개최합니다. 법왕불교대학 중급반 특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법왕사 복지관 대법당에서 열리는데 선착순 50명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입보살행론'은 7세기 무렵 인도의 불교학자 산티데바가 저술한 보리심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서로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맡은 혜능스님은 복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밀교학을 연구하고 울산의 람림학당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스님은 법왕사 백고좌법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법문을 하고 있어 불자들과도 매우 친숙하시며 이번 강좌는 '입보살행론'을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문의 053-766-3747)

불교교양대학 기초교리반, 중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교교양대학 기초교리반, 중급반 수강생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초교리반은 매주 목요일, 중급반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각각 열리며 강의는 주지스님께서 교리와 경전을 직접 강의합니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닫는 참된 불자가 되는 길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문의 053-766-3747)

법왕사 게시판

● 새법우 명단

수성구 김치희 엄세미

●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亡자모 안동유인 권氏영암 영가(이한동 복위)
 亡엄부 진양후인 하公봉철 영가(하진영 복위)
 자모 영양유인 남氏순희 영가
 亡엄부 청주후인 한公을웅 영가(하진영 복위)
 亡조부 안동후인 김公영수 영가(김웅진 복위)
 조모 흥해유인 배氏옥남 영가
 亡엄부 안동후인 김公상규 영가(김웅진 복위)
 자모 김해유인 김氏차임 영가
 亡자 안동후인 김公지한 영가(김웅진 복위)

● 원불봉안 하신 분

3301 박순희(지장보살) 3318 정광춘(아미타불)

● 새롭게 인등 모신 분

733 진종원

● 새롭게 영가 인등 모신 분

60 亡진은지 영가

● 새롭게 산신인등 모신 분

475 전현빈 476 전의화 477 권민서

● 범종 불사 모신 분

김동현

● 축하드립니다

전정광, 이옥자 법우님의 차남 전상혁 군의
 결혼식이 9월 2일 일요일 있었습니다.

● 백고좌 전야 산사음악회 도움 주신 분

주보광직물	자유기획	이호택
편비여킹	선재수학학원	이무술
진성인테리어	주)삼우외식산업	이말남
청송악수삼계탕	광진크레인	남택우
조은부동산중개	오대자원	김분선
속초물회	부창떡집	
경산참숯가마	장어와 미꾸라지	
한진기사식당	주)G.F 코리아	
이화꽃집	연꽃양초	
지오씨엔아이	경일신경내과	
파라다이스 한증막	이상백	

※ 이상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법당 칠성탱화 조성 불사 동참자

김석엽 배근희 김재균 김경미 김민석 김재형
 신호정 김영석 김경령 김길령 이상열 이정애
 이창식 누엔터반 이동학 이호영 이수민 진종원
 정예은 이주원 이규호 이희동 전대원화 이병노
 이해경 이대각 이덕광 이덕운 이만덕 권무착심
 권정등혜 이대지성 이항수혜 이자연심 김능인 유규화
 김봉진 김후자 김표진 현승수 현예진 이법해
 박문수행 이창용 이태용 정해청 송길상화 정호준
 정현정 최종철 이경미 최용원 최해리 김진혁
 이경우 이지은 이동익 정광춘 박홍자 정한웅
 뉴엔디팀(이상) 오창혁 신정순 오재대 김희정
 이유진 이경민 이지명 이미애 예건희 예겸서
 예철희 신성호 신세호 한검 한난희 정연우
 정현욱 오성호 오승희 하지현

※ 칠성광여래의 가피지성력으로 조성불사에 동
 참하신 모든 신도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백고좌 법사비 도움 주신 분

자성화 양영갑

법왕사 게시판



● 본법당 신중탱화 조성 불사 동참자

양명갑

● CMS접수하신 분(8/18~9/15)

한평불사	백춘자 5만원	권해옥 5천원
	정동준 3만원	김익환 2만원
	서필희 1만원	
인 등	이해경 2만원	전재필 5천원
	김영희 2만원	오창혁 1만원
	황금석 7천원	신인숙 5천원
	신정옥 4만5천원	류윤희 1만5천원
	황국희 2만5천원	김보용 2만원
	홍경숙 1만원	노경정 2만원
	장옥주 1만원	김명선 2만5천원
	이숙희 1만5천원	전재호 1만원
	최인겸 1만원	강춘희 2만원
초하루, 축원	김수라 3만원	송수분 2만원
	박정순 2만원	손향숙 2만원
	김지연 3만원	나형진 2만원
	전태일 4만원	송애자 2만원
	이영희 4만원	정연이 2만원
108석등	이창형 3만원	문영자 2만원
원불봉안	이현주 3만원	백미숙 1만원
	백동근 1만원	백미경 1만원
	이현숙 4만원	전임순 1만원
	조경희 5만원	최유자 3만원
	오현아 2만원	김옥자 1만원
	이호진 1만원	차미희 3만원
산신인등	양미경 5천원	김성순 5천원
	김여경 1만원	
평생위패	고연숙 10만원	
해오름불사	남옥연 10만원	
기 타	성유주 5천원	심영선 1만5천원
	전광환 1만원	김연자 1만원
	김재현 1만원	주석순 5천원
	정영석 5만원	

● 감사드립니다

- ◎ 일진행 법우님(일타스님의 친필 글씨/ 불심, 마하반아바라밀 액자/ 달마대사 그림 액자 3점 기증)
- ◎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이지송 문창식 김정순
- ◎ 물품, 공양물
황미선 박경훈 황광덕 박찬호 여보리자
박성경 감로연 연실화 실상화
- ◎ 백중 공양미
조춘자 김성도 정정교 정의현 김상한
박해진 배석진 김경희 신정순 육민환
송홍점 이재학 구승우 정시영 박애경
박임순 조감로연 권상태 권보형 이영우
김병주 박재홍 박순덕 김경환 조기수
신민호 박귀분 이주환 양명갑 양문갑
홍세림 조진불심 김우경 심보현 김민태
김지영 장시덕 정시영 박종성 신인철
양동월 문창식 정한표 이종순 이종량
장승환 이정상 정옥남 박동근 전대원화
장미야 권태점 강숙희
- ◎ 과일공양
류윤만 이경숙 권혁만 정시영 이정상
김일곤 신창진 조철제 정광춘 양명갑
양문갑
- ◎ 떡공양
류윤만 이경숙 권상태 권보형 이종순
심규암 김상수 양혜진 강정선 양봉훈
이영우 박정락 이정훈 김치희 엄세미
이명순 권재현 신동애 여택동 박해진
김인수 양혜진 양봉훈 권혜숙 정국영
홍보희 배해동 민명균 박동근 박해진
홍새미 장미야 정민경 권숙자 김휘성
김정석 이세정 서미경
- ◎ 백고좌법회 법공양
조철제 박정숙 조성민 이화꽃집 이주현

법왕사 게시판

이준혁 이재학 박준범 박준용 이준호
이나영

※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백복순 50부 삼우외식 100부 권홍자 100부
김제경 100부 선재학회 100부 김소영 2,000부
전숙희 100부 김정국 300부 손말두 10부
김제경 100부 박소영 200부 윤지현 100부
김기덕 100부 나재준 100부 정계심 100부
해월스님 500부 최민우 100부 박성호 300부
최민우 100부

※ 사보에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삼보정재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산사음악회에 무료 봉사해주신 단체

바르게 살기 달구벌 포럼 중수봉사단 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왕생극락하옵소서

- ◎ 김동현 법우님의 亡형님후인 김해 김공해용
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이동식 법우님의 亡형님후인 고성 이공동권
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조수민 법우님의 亡엄부후인 창녕 조공진근
영가님의 막제가 9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이한석 법우님의 亡자모유인 안동 권氏영암
영가님의 막제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신라 소리축제 2012

에이실로-전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 전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주 첨성대 광장
에서 열립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종과 에밀레 모형 중 타종 체험,
신라 전통 등(燈) 야경, 신라 거리와 에밀레 거리, 신라 승시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 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053)427-5114

- 일 시 2012년 10월 12일(금)~14일(일) 10:00~22:00
- 장 소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 주 최 대구경북 BBS
- 후 원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참미용실 원장님 이미용봉사 실시



추석을 며칠 앞두고 어르신들의 꽃단장을 위해 참미용실 원장 최옥분님께서 해오름요양원 어르신들께 이·미용봉사를 하셨습니다. 최원장님은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오셔서 봉사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미용실(원장:최옥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1196-9번지 전화 053-783-4334

해오름요양원 직원들 사보 DM작업



해오름요양원 직원들이 자원하여 사보를 봉투에 넣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댁으로 우편배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열력을 통해서 법왕사와 해오름요양원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원금 CMS 자동이체 신청 접수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금 CMS자동이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대표이사 실상스님 및 요양원 직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주·부식과 간식 및 생신잔치 등 어르신들에게 전액 사용되며 매달 사보를 통해서 내역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후원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생신잔치 개최



9월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입소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여서 갖은 음식을 준비하여 생신축하노래와 케익을 절단하고 준비된 음식은 어르신들이 골고루 나누어드셨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을 아주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해오름 게시판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3월~ 8월)

◎ 수입내역

정춘희 3만원	백복순 100만원	이준호 2만원
장익분 2만원	황미자 2만원	박해숙 1만원
이동식 1만원	무기명 19,770원	무기명 19,770원
무기명 39,540원	무기명 59,310원	무기명 59,310원
무기명 39,570원	무기명 59,310원	무기명 39,540원
무기명 19,770원	무기명 19,770원	무기명 79,080원
무기명 59,310원	무기명 39,540원	무기명 39,570원
무기명 19,770원		

합계 1,722,930원

◎ 지출내역

- 의료용품 구입 5,500원
- 어르신 목욕침대 구입 780,000원
- 구미 차병원 출장진료 식비 13,500원
- 구미 차병원 출장진료 주유비 30,000원
- 기저귀 케어용 위생장갑 구입 20,000원
- 어르신 병원 진료비 8,800원
- 종량제 봉투 구입 34,400원
- 어르신 병원 문병 두유 구입 12,000원

잔액 818,730원 (2012년 8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9월 협약병원

보비스병원(이사장 : 신준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43번지

전화 053-745-0100 팩스 053-746-0306

진료과목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화상치료 등

● 봉사활동 하신 분

양혜진 (96시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셔서 어른들도 기뻐고 저희들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 입소하신 어르신

구본매님(여) 부처님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요양보호사 윤정현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전화를 주시면 입소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53)766-5767)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료,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혜능스님 초청 입보살행론 특강 개최

법왕사에서서는 혜능스님(전 해인사 율원장)을 모시고 '입보살행론' 강좌를 개최합니다. 법왕불교대학 중급반 특강으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법왕사 복지관 대법당에서 열리는데 선착순 50명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입보살행론'은 7세기 무렵 인도의 불교학자 산티데바가 저술한 보리심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서로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맡은 혜능스님은 복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밀교학을 연구하고 울산의 람림학당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스님은 법왕사 백고좌법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법문을 하고 있어 법왕사 불자들과도 매우 친숙하시며 이번 강좌는 '입보살행론'을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 의 법왕사 중무소 053-766-3747



제38회 법왕사 가을 경로잔치

제38회 법왕사 가을 경로잔치가 오는 10월 13일 법왕사 광장에서 열립니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흥겨운 공연 한마당을 베푸는 경로잔치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부 기도 10시 30분 ~ 12시 **2부 점심공양** 12시 ~ 1시 **3부 공연** 1시~3시

일 시 2556년 10월 13일(토)

장 소 법왕사 광장

초청인원 5천명

물품 보시 받습니다

구 분	수 량
우 유	5,000개
팩 소 주	5,000개
음 료 수	5,000개
사 과	5,000개
요구르트	5,000개
사 탕	5,000개
빵	5,000개
수 건	5,000개
쇼핑가방	5,000개



※ 쌀, 떡, 일체 모든 대중공양 접수 받습니다. / 당일 자원봉사하실 분도 접수 받습니다.(현재 접수중) / 당일 공연에 무료 출연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비스병원

Everyday for you

보비스병원

믿음과 신뢰로 함께하는
환자중심의 병원,

보비스병원은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내과(위.대장)
정형외과(관절/골절)
인공신장
성인병 / 암검진은
보비스병원입니다.



보비스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 3가동 327 (수성시장 옆)
문의 : 053)745-0100(원무과) 741-8847(건강증진센터)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이용을 바랍니다.

가창방면에서 신천좌안도로를 이용해 오시는 법우님들은 **상동교**에서 **유턴**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법왕사

우회도로
공사중

신천대로 상동교
신천동로 상동교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
수성못
수성중학교
파동초등학교
용두교
수성못오거리
애망원
애활원
송원아파트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심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관심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창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물놀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제23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법회(百高座大法會)

법왕사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제23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 명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 스님**
입 재 9월 7일 회 향 12월 15일
시 간 매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상 주지스님께서 108배 2회를 집전합니다.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전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31일차
10월 7일
이동법회

송담스님
인천 용화사



●41일차
10월 17일
추모법회

원공당
정무대중사



●79일차
11월 24일
특별초청법회

정목스님
BBS 인기진행자



●99일차
12월 14일
보살계 수계법문

중진스님
해인사 울주

초청법사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26일차	10월 2일	대우스님	백련암	38일차	10월 14일	일귀스님	송광사 강주
27일차	10월 3일	원광스님	동화사 총무국장	39일차	10월 15일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28일차	10월 4일	선일스님	인천 법명사	40일차	10월 16일	보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29일차	10월 5일	금중스님	해광사 주지	41일차	10월 17일	원공당 정무 대중사	추모법회
30일차	10월 6일	지안스님	통도사 반야암	42일차	10월 18일	진오스님	월봉사
31일차	10월 7일	송담스님	용화선원원장	43일차	10월 19일	세존스님	동국대 교수
32일차	10월 8일	현각스님	성불원장	44일차	10월 20일	금해스님	황룡사 주지
33일차	10월 9일	암도스님	마하무량사 회주	45일차	10월 21일	지오스님	범어사 율원장
34일차	10월 10일	서보현스님	불광사	46일차	10월 22일	무불스님	향불회 회주
35일차	10월 11일	인해스님	동화사 승가대학 강사	47일차	10월 23일	화정스님	명법사
36일차	10월 12일	무상스님	법주사 박물관장	48일차	10월 24일	본원스님	수덕사
37일차	10월 13일	정각스님	부산 미륵사	49일차	10월 25일	마정스님	용마 관음사